

## 청소년의 상담추구행동과 사회적지지 망의 관계연구\*

장 미 경<sup>†</sup>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으로 상담을 받으려고 상담실에 자발적으로 내방한 청소년들과 상담이 필요하나 상담을 받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 간의 사회적 지지망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각 집단 청소년의 호소문제유형에 따라 그들의 사회적지지 망의 특징이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실에 처음 내방한 중학생 128명과 학교에서 심리적인 어려움과 문제행동을 보여 상담이 필요하지만 상담을 받고 있지 않은 중학생 110명이었다.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상담추구행동을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을 선별하기 위하여 문제행동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연구대상 모두에게 사회적지지 망의 여러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가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상담추구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사회망 지향이 상담이 필요하지만 상담추구 행동을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추구 집단의 청소년들이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및 정서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았다. 청소년의 호소문제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상담추구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한 청소년들이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보다 지각된 지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상담추구행동, 사회적지지 망, 청소년, 사회적 지지, 전문적 도움추구행동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32-B00358).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장미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69  
Tel : 02-3668-4403, E-mail : mkj07@knou.ac.kr

일상생활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먼저 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이 효과적일 때 어려움은 해결되고 생활상의 적응에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부인하고 방치함으로써 심리적인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Andrews, Issakidis와 Carter(2001)에 의하면, 실제로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의 1/3 이하가 전문상담자에게 도움을 구한다고 한다. 사람들은 심리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효과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상담서비스에 대해 고려하게 된다.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심리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되고,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의 결과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상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인이 상담을 받을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Komiya, Good & Sherrod, 2000, 장미경, 2007 개인용).

특히,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측면의 발달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어떤 청소년들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어떤 청소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개인의 전문적인 도움요청 경향과 관련된 개념이 전문적 도움추구행동이다. 전문적 도움추구행동

이란 상담 및 심리치료, 정신과 의료진,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적 원조 체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신현희, 안현의, 2005). 전문적 도움추구행동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의 도움추구태도를 측정하여 도움추구행동을 예측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들이 어려움에 직면해서 교사나 상담자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데는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전문적인 상담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초기연구들은 성별,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주목하였다(Cramer, 1999). 연구결과, 여성, 서구문화권의 사람들,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담자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전문적인 형태의 도움추구인 상담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사적인 문제에 대한 개방성, 낙인, 애착유형 및 심리적 불편감 등이 개인의 상담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주미, 유성경, 2001; 손태주, 박태수, 김성봉, 2011; 신현희, 안현의, 2005; 정진철, 양난미, 2010). 개인의 상담추구행동과 관련이 있는 또 하나의 가능한 변인으로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사회적지지 망(Social Support Network)의 다양한 특징일 것이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청소년이 타인과 가지는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가 타인과 가지는 사회적 관계가 우리의 신체적 건강, 심리적 적응 및 도움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연구가 있어 왔다(Birkel

& Reppucci, 1983; Cohen, 2004; Cohen, Gottlieb, & Underwood, 2000; Vogel & Wei, 2005). 특히, 스트레스에 대처하여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보호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는 지난 30년간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사회적 지지는 여러 연구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어져 왔는데, 스트레스에 대처할 개인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회적지지 망에서 제공되는 심리적, 물질적 자원을 의미한다(Cohen, 2004). 연구자들은 개인의 건강과 안녕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에서 사회적 지지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강조하여왔다(Hirsch & Reischl, 1985; Quamma & Greenberg, 1994; Sandler, 1980; Sarason, Sarason, & Gurung, 1997).

사회적지지 과정은 다양한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특히 개인의 사회 망 지향은 사회적지지 망의 특성을 연구할 때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Barrera & Baca, 1990; Tolsdorf, 1976; Vaux, Burda & Stewart, 1986).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사회 망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사람들은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에 직면해 도움을 요청하는데 있어서 느끼는 편안함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와 관련된 개념이 사회 망 지향(social network orientation)인데, 사회 망 지향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 망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것의 효율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기대이다. 개인의 사회 망에 있는 사회적 지지원은 만약 개인이 가용한 지지 자원을 사용하기 꺼려한다면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유형과 분류도 사회적 지지 망을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회적 지지의 유형으로는 재

정적 도움이나 일상생활에서의 과제에 대한 도움 같은 물질적 도움의 제공을 의미하는 도구적 지지, 개인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적절한 정보의 제공을 의미하는 정보적지지, 공감, 돌봄, 신뢰를 포함한 정서적인 표현을 의미하는 정서적 지지 등으로 구분된다(House & Kahn, 1985; Cohen, 2004). 이렇게 사회적 지지는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따라서, 혹은 부모, 친구, 교사, 친척 등의 사회적 지지 원(source)에 의해서 분류된다. 그리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사회적 지지, 다양한 지지 원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 망 지향 등과 같은 사회적 지지의 여러 측면이 개인의 사회적지지 망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우리가 필요할 때 주위의 사회적 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보다 전문적인 형태의 도움추구인 상담추구행동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Birkel & Reppucci, 1983; Tata & Leong, 1994; Vogel & Wei, 2005 김주미, 유성경, 2002). 약한 사회적지지 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보다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Birkel & Reppucci, 1983; Vogel & Wei, 2005). 사회적 지지가 적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이러한 어려움은 개인의 도움추구 의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Tata와 Leong(1994)은 사회적지지 망으로부터 가능한 도움의 유용성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각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전문가로부터 심리적인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경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보다 긍정적인 사회 망 지향을 가지고 있

는 학생들이 부정적인 사회 망 지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는데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연구에서 김주미와 유성경(2002)은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전문적 도움추구태도는 높은 자기은폐, 부정적 사회 망 지향 및 수직적 집단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Larose, Bernier, Soucy와 Duchesne(1999)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과정은 도움의 유용성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각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망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이 어려움에 처해서 교사나 상담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사회적지지 망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와 지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가족 관계,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 등에서 어려움에 처할 때 이전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에 기초해서 상담자의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데 보다 적극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변의 부모, 교사 등의 상담에 대한 권유에도 보다 긍정적인 지각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상담추구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상담추구행동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고 있지는 않다. 상담추구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상담추구행동보다는 상담추구 의도나 태도를 측정함으로써 상담추구행동을 예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담추구 의도나 태도는 상담추구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Bosmajian과 Mattson(1980)은 상담에 대한 태도변인이 대학생들의 상담요청행동에 있어서 의미있는 예언

변인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Deane과 Todd(1996)는 어떤 사람은 상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상담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상담추구의도나 태도보다는 상담추구행동을 직접적으로 살펴보고 하였다. 따라서 실제로 전문적인 도움추구행동을 보이는 즉, 실제 상담을 받으려고 상담실에 내방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적 지지망의 특징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청소년 내담자의 특징이 부모나 교사의 상담권유, 혹은 학교의 상담의뢰를 통한 비자발적인 내담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 상담추구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담실에 내방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상담추구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청소년보다는 대학생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상담추구행동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실제적인 상담추구행동과 사회적지지 망의 다양한 특징들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담추구행동을 보이는 즉,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문제행동으로 인해 상담을 받으려고 상담실을 직접 내방한 청소년들과 학교에서 여러 어려움과 문제행동을 나타내고 있으나 상담추구행동을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 간의 사회적 지지망의 특징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 사회

적지지 망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각 집단에서 청소년이 보이는 호소문제유형에 따라 사회적 지지망의 특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상담추구 행동에 기여하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는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자가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적절한 개입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어려움으로 상담을 받으려고 상담실에 자발적으로 내방한 청소년과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으나 상담을 받지 않는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망의 특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상담추구행동을 보이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의 호소문제유형에 따라 사회적지지 망의 다양한 특징들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방법

###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실에 처음 내방한 중학생 128명과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보여 상담이 필요하지만 상담을 받고 있지 않은 중학생 110명이었다.

우선 상담추구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에 대한 자료수집은 서울, 경기, 강원, 충청지역의 청소년상담실과 개인 상담실을 내방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상담을 받으면서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망에 대한 지각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상담실에 처음 내방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또한 청소년상담의 경우 비자발적인 내담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추구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을 선발하기 위해 상담자에게 자발적인 내담자를 대상으로 설문은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다양한 문제행동을 나타내 상담이 필요하나 상담을 받고 있지 않은 청소년은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대상으로 선발되었다. 해당 학교의 중학생 5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문제행동 척도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중학생 110명을 문제행동으로 상담이 필요하나 상담을 받고 있지 않은 학생으로 분류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을 살펴보면, 상담추구행동을 보이는 중학생의 경우(이하 상담추구 집단) 남학생이 40.6%, 여학생이 59.4%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여 상담이 필요하나 상담을 받고 있지 않은 중학생(이하 상담비추구 집단)은 남학생이 40.9%, 여학생이 57.3%로 나타나 양쪽 집단 모두에서 남녀학생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와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상담추구행동을 나타내지 않는 청소년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문제행동척도,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망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와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개발한 내담자의 호소문제유형 체크리스트가 사용되었다. 호소문제유형 체크리스트는 11개의 다양한 문제영역 중에서 청소년들이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느끼는 한 가지 문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 사회 망 지향 척도

사회 망 지향 척도는 Vaux, Burda와 Stewart (1986)가 개발하고 장미경(2007)이 변안한 Network Orientation Scale(NOS)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의 사회적지지 망을 사용하고 자 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향성을 측정하는 4점 척도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높은 점수는 사회적 지지의 자원을 유지하고 이용하는 것에 관한 부정적인 태도와 믿음 즉, 부정적인 사회 망 지향을 나타낸다. 장미경(2007)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77 로 적절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67이었다.

#### 대인관계 지지 평가 척도

개인이 받은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지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Cohen과 Hoberman(1983)이 개발하고 장진이(2001)가 수정하여 사용한 대인관계 지지 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개인이 자신의 상태를 잘 기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예', '아니오' 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이 지각한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와 자존감 지지의 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장진이(2001)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전체 척도에 대해 .87로 보고 되었으며, 정보적 지지에서 .85, 물질적 지지에서 .75, 정서적 지지는 .69, 자존감 지지는 .61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전체 척도에 대해 .87로 보고되었으며, 정보적 지지 .80, 물질적 지지 .75, 정서적 지지 .66, 자존감 지지 .55로 나타났다.

####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

어떤 지지원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았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Dubow와 Ulman(1989)의 The Support Appraisal Scale를 한미현(1996)이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가 사용되었다. 친구, 가족과 교사로부터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의 3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총 24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전체 척도에 대해 .92 였으며, 친구지지의 경우 .92, 가족지지 .93, 교사지지는 .86로 나타났다.

#### 문제행동 척도

문제행동척도는 Achenbach(1991)가 제작하고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1997)가 12-17세 한국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한 K-YSR(Korean-Youth Self Report) 척도 중 문제행동증후군 척도(Behavior Problem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에서 내면화 문제인 위축, 신체증상, 불안/우울과 외현화 문제인 비행, 공격성을 측정하였다. 척도는 3점 척도로 총 6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전체 척도에 대해 .94 였으며, 내면화 문제에 대해서는 .92, 외현화 문제에 대해서는 .90이었다.

####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  검증, 일원변량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상담추구행동 여부에 따른 사회적 지지망의 차이 검증**

청소년의 상담추구행동 여부에 따른 사회 망 지향, 대인관계 지지 평가 및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문제행동으로 인해 상담을 받으려고 상담실을 직접 내방한 청소년들과 문제행동을 나타내고 있으나 상담을 받지 않는 청소년들 간의 사회적지지 망의 특징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망의 특징은 청소년들의 사회 망 지향, 대인관계 지지 평가 및 지각된 사회적지지를 통해서 평가하였다.

표 1에서와 같이, 상담추구 집단과 상담비추구 집단은 사회 망 지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3.57$ ,

$p < .001$ ). 즉, 상담추구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사회 망 지향이 상담비추구 청소년들보다 긍정적이었다.

대인관계 지지 평가에서는 상담추구 집단의 대인관계 지지가 상담비추구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 = 3.13$ ,  $p < .01$ ). 즉, 상담추구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상담비추구 집단의 청소년들보다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척도별로 살펴보면, 상담추구 집단의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및 정서적 지지가 상담비추구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각각  $t = 3.10$ ,  $p < .01$ ,  $t = 3.02$ ,  $p < .01$ ,  $t = 3.87$ ,  $p < .001$ ). 그러나 자존감 지지의 경우는 상담추구 집단과 상담비추구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지지 원으로부터 지각된 지지와 관련한 결과를 살펴보면, 상담추구 집단의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상담비추구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표 1. 상담추구행동 여부에 따른 사회적지지 망의 차이검증

척도	상담추구집단	상담비추구집단	<i>t</i>	
사회 망 지향	47.38(5.76)	50.14(5.91)	-3.57***	
대인관계지지평가	정보적지지	21.27(3.12)	19.98(3.16)	3.102**
	물질적지지	21.47(2.63)	20.34(2.94)	3.015**
	정서적지지	20.15(2.61)	18.86(2.45)	3.869***
	자존감지지	16.91(2.40)	16.65(2.19)	.830
지각된 사회적지지	전체척도	79.78(8.83)	76.08(8.29)	3.133**
	친구지지	29.48(6.54)	27.31(5.09)	2.796**
	가족지지	28.44(7.46)	26.01(6.10)	2.749**
	교사지지	23.79(6.34)	23.62(5.78)	.221
전체척도	81.95(15.00)	76.75(11.39)	2.979**	

\* $p < .05$ , \*\* $p < .01$ , \*\*\* $p < .001$

났다( $t = 2.98, p < .01$ ).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하위척도별로 결과를 보면, 상담추구 집단 학생들이 상담비추구 집단 학생들보다 친구지지와 가족지지가 유의미하게 높았다(각각  $t = 2.80, p < .01, t = 2.75, p < .01$ ). 즉, 어려움에 처해 상담추구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경우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지각된 지지가 상담추구 행동을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사지지와 관련해서는 상담추구 집단과 상담비추구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호소문제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망의 차이 검증**

상담추구 집단과 상담비추구 집단의 청소년들이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호소문제유형에 따라서 사회적지지 망의 특징

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각 집단별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11개의 다양한 문제영역 중에서 청소년들은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느끼는 한 가지 문제를 선택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해 5% 미만의 적은 수의 청소년들이 응답한 호소문제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에 대해 각 집단에서 호소문제유형에 따라 사회적지지 망에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각 집단에서 5% 이상의 청소년들이 응답한 호소문제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 망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집단별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표 4와 같다.

상담추구 집단의 경우, 5% 이상의 청소년들이 응답한 호소문제영역은 2문제 이상에 응답한 경우와 가족문제, 학업 및 진로, 대인관계, 정신건강문제 및 어려움 없음으로 나타났다. 상담비추구 집단에서 5% 이상으로 나타난 청

표 2. 상담추구 집단과 상담비추구 집단의 호소문제유형

호소문제	상담추구집단	상담비추구집단
2문제 이상	32(25.0%)	16(14.5%)
가족문제	12(9.4%)	7(6.4%)
일탈 및 비행	1(0.8%)	2(1.8%)
학업 및 진로	38(29.7%)	42(38.2%)
성	2(1.6%)	7(6.4%)
성격	6(4.7%)	4(3.6%)
대인관계	8(6.3%)	4(3.6%)
정신건강	8(6.3%)	4(3.6%)
생활습관	2(1.6%)	3(2.7%)
컴퓨터/인터넷 사용	4(3.1%)	3(2.7%)
어려움 없음	14(10.9%)	14(12.7%)
결측	1(0.8%)	4(3.6%)
합계	128(100%)	110(100%)



표 3. 호소문제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망의 차이검증-상담추구 집단

	2문제 이상	가족문제	학업 및 진로	대인관계	정신건강	어려움 없음	F
사회망지향	48.69 (7.20)	48.92 (2.75)	46.32 (4.29)	45.63 (6.26)	51.00 (5.45)	46.71 (5.62)	1.65
대인관계 지지평가	79.52 (8.93)	77.73 (7.60)	81.48 (6.51)	78.00 (13.03)	76.14 (12.20)	85.33 (4.44)	1.76
지각된 사회적지지	79.23 (17.95)	74.36 (7.12)	85.39 (12.36)	73.5 (12.34)	72.5 (19.73)	91.43 (14.69)	3.57**

\* $p < .05$ , \*\* $p < .01$ , \*\*\* $p < .001$

표 4. 호소문제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망의 차이검증-상담비추구 집단

	2문제 이상	가족문제	학업 및 진로	성	어려움 없음	F
사회망지향	49.67 (5.88)	51.14 (10.22)	48.67 (6.38)	50.71 (4.15)	49.64 (2.68)	.38
대인관계 지지평가	75.73 (10.12)	72.67 (8.04)	78.31 (8.08)	76.33 (5.43)	76.31 (5.20)	.80
지각된 사회적지지	77.00 (9.78)	73.00 (9.08)	79.54 (12.67)	73.57 (6.02)	74.21 (9.28)	1.12

\* $p < .05$ , \*\* $p < .01$ , \*\*\* $p < .001$

소년들의 호소문제유형은 2문제이상, 가족문제, 학업 및 진로, 성문제 및 어려움 없음이었다. 두 집단 모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답한 호소문제유형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된 문제였다(표 2). 호소문제유형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상담추구 집단 청소년들의 호소문제유형에서는 대인관계문제와 정신건강문제가 있었던 반면, 상담비추구 집단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문제를 주요 문제영역으로 선택하고 있었다.

상담추구 집단과 상담비추구 집단의 호소문제유형에 따른 사회적지지 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각 집단별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

한 결과를 보면, 상담추구 집단의 경우 호소문제유형에 따라 사회 망 지향과 대인관계 지지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각각  $[F(5, 102) = 1.65, ns]$ ,  $[F(5, 94) = 1.76, ns]$ ). 즉, 상담추구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영역에 따라 사회 망 지향이나 지각된 지지의 유형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경우에는 상담추구 집단에서 호소문제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5, 103) = 3.57, p < .01$ ). 이러한 차이가 어떤 호소문제영역 간의 차이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Turkey검증을 이용해 사후분

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현재 어려움이 별로 없다고 응답한 집단과 정신건강문제로 힘들다고 응답한 집단 간에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즉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한 청소년의 경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보다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낮았다.

상담비추구 집단의 경우는 청소년들의 호소문제유형에 따라 사회 망 지향, 대인관계 지지 평가와 지각된 사회적지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각각  $[F(4, 77) = .38, ns]$ ,  $[F(4, 70) = .80, ns]$ ,  $[F(4, 78) = 1.12, ns]$ ).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상담추구행동을 보이는 청소년과 상담이 필요하나 상담추구행동을 보이지 않는 청소년 간의 사회적지지 망의 특징에 대해 비교분석하였으며, 각 집단에서 청소년들이 보이는 호소문제유형에 따라 사회적지지 망의 특징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추구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사회 망 지향이 상담이 필요하지만 상담추구행동을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문제행동으로 인해 상담을 받으려고 상담실을 직접 내방한 청소년들의 사회 망에 대한 지각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나 상담을 받지 않는 청소년들의 사회 망 지향보다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 망 지향과 전문적인 도움추구의도나 태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신연희와 안현의(2005), 김주미와 유성경(2002)

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연구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는데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학생들은 자신의 사회적지지 망으로부터 가능한 도움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을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전문적인 도움추구행동과 사회 망 지향 간의 관계는 전문적인 도움추구태도에 대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둘째, 상담추구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다양한 유형과 정보원으로부터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상담추구 집단의 청소년들이 상담비추구 집단의 청소년들보다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및 정서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약한 사회적지지 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보다 많이 찾는다는 선행연구(Birkel & Reppucci, 1983; Vogel & Wei, 2005)와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낸다. 그들의 설명에 의하면, 주변에서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적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보다 큰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보다 높은 도움추구의도로 이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상반되는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상담추구행동을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 문제행동 척도가 내면화문제인 위축, 불안, 우울뿐만 아니라 외현화 문제인 비행행동과 공격성도 측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즉 문제행동 척도가 상담비추구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동시에 문제행동도 측정하고 있는데, 상담추구행동을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해 그들 스스로 어려움이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이것은 Powell과 Kotschessa(1995)의 연구결과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도움추구 여부에 대한 개인의 결정은 자신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상담추구행동을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해 인식이 낮은 것 그리고 문제행동이 높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가 일반적으로 낮은 것(Quamma & Greenberg, 1994)이 상담비추구 청소년들의 낮은 지각된 지지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상담추구 집단의 청소년들이 상담비추구 집단의 청소년들보다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더 높은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고 있었으나, 교사지지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Larose et al.(1999)에 따르면, 학교현장에서 교사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은 주로 도움에 대한 잠재적인 유용성과 관련한 학생들의 인지의 기능이라고 한다. 사회적지지 망의 다양한 특징들에서 상담추구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긍정적이고, 높은 지각된 지지를 나타낸 반면, 교사로부터의 지지에 대해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청소년들의 과거 교사와의 경험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교사들의 주요 업무가 학생지도와 교육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상담추구행동과 교사의 지지와의 관련성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이해를 위해 정교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와 문제행동을 고려해 볼 때, 학교에서 교과교육 외에 청소년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두 집단의 호소문제유형에 따른 사회

적지지 망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상담추구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 중에서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한 청소년들이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보다 친구, 부모와 교사로부터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게 나타났다. 즉, 상담을 받으려고 상담실에 내방했으나 현재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에 비해 정신건강문제로 내방한 청소년들은 주변으로부터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았다. 실제 상담추구 집단의 청소년들이 응답한 호소문제 유형에 따른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평균을 살펴봐도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한 청소년들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평균(72.5)이 가족문제(74.36), 학업 및 진로(85.39), 대인관계(73.50)보다 낮아 여러 호소문제유형 중에서 지각된 지지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적은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상담추구행동에 대해 상담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청소년 문제의 다양화와 심각성으로 인해 청소년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 및 개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환경적으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의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사회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에 대한 위기개입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그러나 사회와 국가의 청소년 지원체계들이 통합적인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행되기 보다는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청소년

년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상담적인 개입이 보다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노력 중에서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필요할 때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보다 적극적인 도움추구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자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사회적지지 망에 주의해야 함을 강조했다.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어려움에 처해 상담추구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사회 망 지향이 긍정적이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도움이 필요한 잠재적인 내담자들이 상담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학교폭력, 왕따, 게임과다 사용 등의 청소년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나 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는 부족한 상태이며, 상담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높지 않은 편이다.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상담기관을 찾아오지 않는 잠재적 내담자들은 전문상담자의 도움을 구하지 않음으로써 증상이 더 악화되거나 적절한 개입의 시기를 놓치고 더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기도 한다. 본 연구는 심리적인 어려움과 높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이라도 긍정적인 사회 망 지향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어려움에 직면해 전문적인 도움추구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온 사회적지지 망의 긍정적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에서 활용하는 것일 수 있다. 장미경(2007)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입프로그램은 사회적 지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스트레스에 처했을 때 주위에서 가능한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주변에서 사용가능한 자원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돕고, 부적인 상호작용을 줄이면서 사회적인 유대를 증진시키며, 필요할 때 어디서 어떤 도움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주위에서 잠재가능한 자원에 대해 알고 도움의 유용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각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둔 상담활동이 긍정적인 사회 망 지향을 형성하고,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상담추구행동을 직접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또한 의의가 있다. 상담추구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상담추구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상담추구태도나 의도를 측정하고 있어 직접적인 개인의 상담추구행동을 평가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결과에서 상담추구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과 상담이 필요하나 상담추구행동을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망의 다양한 특징들이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상담추구나 전문적인 도움추구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추구 청소년과 상담비추구 청소년이 느끼는 심리적 불편감을 측정하고 있지는 않다. 심리적 불편감의 수준과 상담추구 의도

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에 기초해 볼 때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상담추구행동을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편감이 낮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상담추구 집단과 상담비추구 집단의 청소년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편감의 정도를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추구행동을 보이는 청소년과 문제행동을 나타내 상담이 필요하나 상담을 받고 있지 않은 청소년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이 두 집단이 모두 중학생이라는 점 이외에 나타날 수 있는 학업성적이나 문제행동 등의 다른 집단 간 차이에 대해서 검증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사회적 지지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의 사회 망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망에 대한 이해는 이들이 어려움이나 스트레스에 직면해 전문가인 상담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과 높은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상담추구행동에 기여하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는 상담자가 적절한 상담개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2006 청소년백서.  
김주미, 유성경 (2002).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화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91-1002.  
손태주, 박태수, 김성봉 (2011). 중학생의 애착 유형과 전문적도움추구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1), 191-202.  
신연희, 안현의 (2005).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서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77-195.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검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장미경 (2007).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서 사회 망 지향의 매개효과 연구. 상담학연구, 8(4), 1263-1276.  
장진이 (2001). 자기은폐와 정서표현 성향, 지각된 사회적지지 그리고 도움추구 태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진철, 양난미 (2010). 낙인과 자존감,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31-652.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chenbach T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s.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Andrew, M. C., Issakidis, C., & Carter, G. (2001). Shortfall in mental health service utilizat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9*, 417-425.  
Barrera, M., & Baca, L. (1990). Recipient reactions to social support: Contributions of enacted

- support, conflict support and network orienta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541-551.
- Birkel, R. C., & Reppucci, N. D. (1983). Social networks, information-seeking, and the utilization of servic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 185-205.
- Bosmajian, C. P., & Mattson, R. E. (1980). A controlled study of variables related to counselling center us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510-519.
- Cohen, S. (2004).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november, 676-684.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hen, S., Gottlieb, B., & Underwood, L. (2000).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In S. Cohen, L. Underwood, & B. Gottlieb (Eds.), *Measuring and intervening in social suppor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ramer, K. M. (1999). Psychological antecedents to help-seeking behavior: A reanalysis using path modeling structur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381-387.
- Deane, F. P., & Todd, D. M. (1996). Attitudes and intentions to seek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for personal problems or suicidal thinking.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10, 45-49.
-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hild Clinical Psychology*, 18, 52-64.
- House, J. S., & Kahn, R. L. (1985). Measures and concepts of social support. In S. Cohen & L. Sym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New York: Academic Press.
- Hirsch, B. J., & Reischl, T. m. (1985). Social networks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 comparison of adolescent children of a depressed, arthritic, or normal par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272-281.
- Kelly, A. E., & Achter, J. A. (1995). Self-concealment and attitudes toward counseling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40-46.
- Komiya, N., Good, G. E., & Sherrod, N. B. (2000). Emotional openness as a predictor of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138-143.
- Larose, S., Bernier, A., Soucy, N., & Duchesne, S. (1999). Attachment style dimensions, network orientation and the process of seeking help from college teacher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6(2), 225-247.
- Powell, G. N., & Kotschessa, B. (1995). Factors that influence professional employees willingness to seek counseling. *Psychological Reports*, 77, 872-874.
- Quamma, J. P., & Greenberg, M. T. (1994). Children's experience of life stress: The role family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as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 295-305.
- Sandler, I. N. (1980). Social support resources, stress and maladjustment of poor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8,

- 41-52.
- Sarason, B. R., Sarason, I. G., & Gurung, R. R. (1997). Close personal relationships and health outcomes; A key to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S. Duck (Eds.),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New York: Wiley.
- Tata, S., & Leong, F. (1994). Individualism-collectivism, social network orientation, and acculturation as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mong Chinese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280-297.
- Tolsdorf, C. (1976). Social networks, support, and coping: An exploratory study. *Family Process, 15*, 407-417.
- Vaux, A., Burda, P., & Stewart, D. (1986). Orientation toward utilization of support resourc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159-170.
- Vogel, D. L., & Wei, M. (2005). Adult attachment and help-seeking intent: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347-357.
- 원 고 접 수 일 : 2012. 06. 22.  
수정원고접수일 : 2012. 07. 24.  
최종게재결정일 : 2012. 07. 28.

##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fessional Help-seeking Behavior and Social Support Network among Adolescents

Mikyung Ja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ti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fessional help-seeking behavior and social support network among adolescents. Participants with showing professional help-seeking behavior were one hundred twenty-eight middle school students who visited counseling center for counseling. Participants with not showing professional help-seeking behavior were one hundred ten middle school students who ranked high 20% in the questionnaire of problem behavior. Thus, two hundred thirty-eight middle school students completed questionnaires about social support network variabl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tudents with professional help-seeking behavior showed more positive network orientation than the students who did not show professional help-seeking behavior. The students with professional help-seeking behavior perceived more information support, material support, and emotional support, and also perceived more support from friends and family than those of not showing professional help-seeking behavior. With relation to the differences in the social support network by problem areas, students with problems of mental health perceived lower support than students with no problems for the group of professional help-seeking behavior. The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 professional help-seeking behavior, social support, adolescent, counseling seeking behavior